

## 2023 순전한 믿음 1.

## 여호수아! 하나님이 주신 버터 널 힘을 받다

[여호수아 1:8-9]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행통하리라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2023년 신년 주일 시리즈도 특세에 이어 '연결'이다. 연결의 핵심은 '믿음'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다.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과 연결되었는지를 보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믿음의 연결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된 연결을 해 보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를 계속 설교해 왔다. 모세의 비전은 여호수아와 연결되었고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 현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는 두 시즌을 지나가게 된다.

## 1. 모세의 시즌

모세는 새로운 시작이다. 모세를 통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새로운 시작은 광야로부터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은 사십 주야를 금식하시며 사탄의 모든 시험을 광야에서 이기셨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승리가 '사탄'을 이미 이긴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광야는 성도에게 있어서 '시작'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장소다. 스테반은 광야를 '교회'라고 설교한다.

[사도행전 7: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는 구절이다. 광야는 인간의 능력, 혼의 능력이 제로가 되는 곳이다.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광야에서 살려면 전적인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광야는 나의 육신의 자아가 날마다 죽는 곳이다.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육신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 광야 교회에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의 교회는 강력하다.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이 변질되는 곳이다. 광야에서 소유의 개념은 없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살아남는 것이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생존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광야는 철저히 세상 것과 차단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 명확하다.

첫째, 광야를 통과하면 온유한 자가 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복을 받을 마음의 공간이 확보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마음에 받을 공간이 없으면 이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온유함의 본뜻은 '접착성이 있는' '꿀'과 같은 개념이다. 꿀은 달콤하다. 꽃에 꿀이 있어야 나비와 벌들이 모인다. 사람도 마

찬가지다.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인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리더'다. 그 예가 모세다.

[민수기 12: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리더의 상징이다. 그는 온유한 자였다. 육의 것은 부패한다. 향기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죽은 영은 향기롭다. 아름답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더 모세와 연결되기를 원했다. 모세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

결국 모세는 여호수아를 얻었고 여호수아는 땅을 얻었다. 모세의 시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공동체를 얻고 믿음의 사람을 얻고 동역자를 얻으려면 온유해야 한다.

## 2. 여호수아의 시즌 - 약속의 땅

여호수아의 힘은 모세와 연결됨, 즉 '모세의 유업'으로부터 온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사람이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전사다. 누가 약속을 이룰 수 있는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다. 전쟁을 포기하는 사람은 지는 것이다. 버틸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호수아 1:7-9]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어떤 어려움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8절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신다.

'묵상' (하가) = 으르렁거리다. (사자가 자신의 음식을 지키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것이다. - 전투적 의미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영적 생존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전투적인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생존의 힘이 버터 냄이의 힘이다'

생존의 힘을 키워야 한다 - 생존은 마지막을 버틸 수 있는 본능의 힘이다. - 마지막 때 생존의 힘을 키워야 한다. : 생존은 진짜 생명의 힘이다. 마지막과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 내자. 유업을 지켜 내고 가정을 지켜 내고 허락하신 모든 언약을 지켜 내야 한다. 하나님은 버터 널 힘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나와 우리 가족, 공동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해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자.